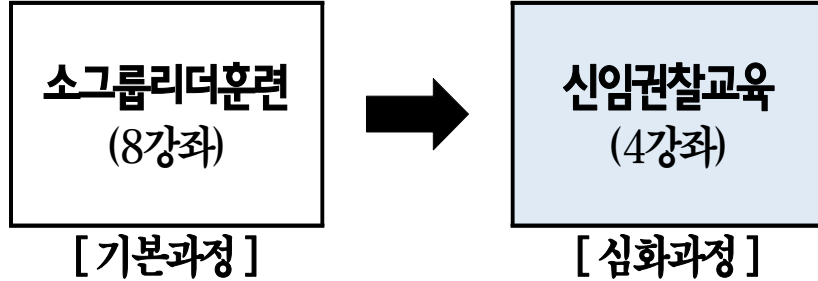


2025년

신임권찰 교육

- 일시: 2025년 1월 12(주일), 19일(주일)
오후 1시 30분 ~ 4시 30분
- 장소: 901호
- 주관: 교구관리부

신임권찰교육 과정



- 1) 목적: ① 구역의 목양사역에 헌신할 신임권찰 양성을 위한 집중교육
 ② 연1회 실시하여 기존권찰의 재교육·헌신의 장으로도 활용
- 2) 일정: 매년 1월 중, 4강좌 교육
- 3) 대상: ① 2024년 신임권찰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분
 ② 기본과정인 2024년 소그룹리더 훈련과정을 이수한 분
 ③ 2025년 권찰로 새롭게 추천된 분
 ④ 2025년 부구역장에서 구역장으로 추천된 분
- 4) 과목:

강의명		시간
1주차	1강. 구역사역 매뉴얼 - 권찰의 구체적인 역할 안내	90분
	2강. 권찰의 영성1 - 구역사역을 위해 필요한 영성생활(말씀) 안내	90분
2주차	3강. 권찰의 영성2 - 구역사역을 위해 필요한 영성생활(기도) 안내	90분
	4강. 구역공과 인도의 이론과 실제 - 구역공과 교재와 교수법 소개 및 인도의 실제	90분

3강. 권찰의 영성2

기도

1. 기도란 무엇인가?

1) 기도는 사귄다.

- 기도는 우리의 영혼과 이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사귄다, 만남이다.
 -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갈망하신다. -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show me your face, let me hear your voice” (아가 2:14)
 - 하나님과의 사귄다를 갈망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본성이다. -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어거스틴, <고백록>)
- ※ 기도는 우리 영혼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창조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갈망을 알아차리고, 이 갈망에 응답하여 하나님과의 사귄다를 시작하는 것이다.
- 청원기도: 사귄다의 기도의 한 부분이다. 기도 관계의 초기에 청원기도가 주를 이루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고, 청원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사귄다 시작되게 하는 동기가 된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청원과 응답의 단편적인 관계맺음에서 더 깊은 사귄다로 자라가야 한다.
 - 기도의 성장은 우리의 갈망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기도는 경청(listening)과 개방(openness)의 태도로 성장하는 사귄다.

- 자기중심적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 경청과 개방의 태도의 성장, 자기주도성(통제욕구)에서 수용성(신뢰, 내어맡김)으로의 전환 등이 기도의 성장에 중요한 표지이다.

2. 기도의 세 단계

1) 하나님을 앎(Knowing God) - 묵상적 기도(meditative prayer)

- 앎을 추구하는 단계이다. - 이해와 통찰이 중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를 추구
-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겨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 자라는 단계이기도 하다.
- 라디오 청취 비유: ① 좋은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주위를 조용하게 해야 하며(침묵과 고요),
② 주파수를 잘 맞춘 라디오(자기지식을 바탕으로 한 정화)가 있어야 한다.

2) 앎에서 사랑으로(From Knowing to Loving)

- 정감적 기도(affective prayer)

- 정감적 체험이 일어나는 단계이다. - 사랑의 관계형성의 단계
- 말하기와 듣기의 중간연결단계: 많은 말보다 함께 함의 기도로 전환, 많은 지식이나 정보가 필요하지 않고 한 구절의 말씀을 깊게 체험함, 아는 구절들을 깊게 맛보고 음미함.
- 감성적 만족의 욕구로부터의 정화와 자유: 메마름의 체험을 통해. 인간은 감성적 만족의 욕구로부터 부자유하다. 기도 안에서 감성적 만족이 일어나는 체험을 추구하고 애착하게 된다. 이는 하나님을 조정하고 기도를 통제하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감정은 자주 조작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감정 충족을 끊임없이 추구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일은 실제하는 그 분,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을 내 맘대로 조정하려 할 때 일어난다.”
- 정감적 체험이 일어나는 기도는 기도가 성장되었음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화의 과정을 통과해야 함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메마름과 어둠을 통해 기도를 정화시키신다.

3) 사랑에서 참 사랑으로 - 관상적 기도(contemplative prayer)

- 사랑이 정화되고 순수한 사랑으로 변화되는 단계이다. - 통찰이나 체험을 넘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단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맡기고 하나님에 의해 변화되는 단계.
- 진정한 기도와 환상(illusion)의 차이를 결정짓는 기준: “우리가 만난 분이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아는 가장 좋은 증거는, 우리가 바랄 때는 그분이 안계시고 바라지 않을 때는 계신다는 사실이다.”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 체험임을 알 수 있는 좋은 증거는 그 체험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3. 기도를 어떻게 안내할 것인가?

1) 닫혀진 기도(자기 몰두적인 기도)를 분별하고 자기를 개방하도록 돕는다.

2) 기도를 행동 혹은 성취(Doing)로 여기기보다, 함께함(Being)으로 여기도록 돕는다.

-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자신이 해야 할 노력과 행동으로 여기고, 노력한 만큼의 성취와 결과물을 얻지 못하면 비효율적이거나 무의미하다고 여기는 경향성을 보인다. 이는 기도를 기본적으로 행위(Doing)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함(Being) 자체이다. 기도는 거룩한 시간 낭비이다. 이러한 기도의 본질과 가치를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 침묵(영혼의 침묵)이 중요하다. 침묵은 듣고, 개방하고, 수용성의 태도를 기르는 자리이다.
- 한 두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음미하고 체험하며 기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3) 기도가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돕는다.

4)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정직하게, 진정성 있게 기도하도록 격려한다.

- 현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고, 인정하고, 정직하게 주님께 말씀드린다. 억지로 자기 스스로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이것은 자기 안에서의 노력이지 관계맺음이나 사귄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다. 정직함과 진실성이 빠진 기도는 메마르게 되며, 피지도자는 기도에 저항하게 된다.
- 팀원이 정직하게 기도하지 못할 때, 그의 하나님 이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하나님 이미지: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은 우리가 그 사람과 관계맺는 방식(우리가 그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우리가 관계맺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가 우리를 알고 사랑하도록 허용할 것인지 등)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하나님 이미지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것들은 우리가 기도하는 방식에, 또 기도에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고 또 어떻게 그것을 경험하는지에 영향을 미친다.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하나님 이미지들은 우리가 삶과, 공동체, 그리고 자기 자신과 관계 맺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당신을 어떻게 계시하고 드러내 오셨는지를 기도할 필요가 있다.

5) 자신의 기도를 스스로 평가하지 않고 신실하게 기도하도록 격려한다.

- 기도를 결과물에 따라 자꾸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기준에 따라 평가할 때마다 우리는 기도를 중단하게 되고 좌절하게 된다.

- 중요한 것은 신실함의 태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에서 신실하여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사귄의 태도이다.

6) 알아차리고 은혜를 구하는 단순한 기도를 격려한다.

- 기도의 핵심순서: ① 알아차리기(Self-knowledge) - 정직함과 신실함을 회복하는 과정
② 은혜를 구하기(Being rooted in Jesus Christ) -
지금 상태에 맞는 은혜
③ 겸손히 인내하고 기다리기(Perseverance) -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14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후서 1:14

4강. 구역공과 인도의 이론과 실제

5. 권찰사역

3) 구역모임

○ 구역모임 준비

① 공과준비

- 공과교육 참여: 매월 권찰회 시 공과교육에 참여한다.

- 공과교육 복습: 공과교육 녹화영상으로 복습한다.

※ 녹화영상은 교회 홈페이지 ☞ 말씀·찬양 ☞ 교육영상·세미나에서 시청

- 공과별지 준비: 구역원수 만큼 준비한다.

※ 공과별지는 권찰회시 배부/ 1층 안내데스크 비치/ 교회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구역모임에 참석치 못한 구역원들에게 공과별지를 전달

○ 모임 일정

① 구역모임은 매월 1회 정기(일반적으로 매월 첫 번째 금요일, 1월과 8월은 휴회)

○ 모임 장소

① (부)구역장 혹은 구역원 집에서 모임을 가진다.

② 교회 혹은 카페, 세미나룸 등에서도 모일 수 있다.

③ 모임장소는 자주 바뀌지 않는 것이 좋다.

○ 참석자 확인

① 모임 한 주 전 참석여부를 확인한다.

② 반드시 기도로 준비한 후 참석여부 확인할 것.

③ 구역원들이 구역모임을 우선시 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

○ 구역모임 진행순서

순서		내용
1. 환영	인사와 교제	구역원들과 인사하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면서 따뜻한 모임 분위기로 인도한다. 다과가 있을 경우에는, (부)구역장이 감사기도를 한다.
	감사와 나눔	
2. 찬양		구역에서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다면, 구역모임 찬양인도자로 세워 담당하도록 한다. 찬양시간에는 찬양에 방해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3. 말씀	말씀요약	(부)구역장이 말씀을 정리/요약해 주고, 공과별지를 정독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준다.
	삶의 적용을 위한 나눔	삶의 적용을 위한 나눔을 할 때는 말주제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한 사람이 오랜시간(3분이내) 독점하지 않도록, 또한 나눔에서 소외되는 구역원이 없도록 유의한다.
4. 기도	합심기도	가정과 교회/ 나라와 민족/ 태신자
	주기도로 모임을 마칩	기도제목을 나눌 때는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하고, 서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진솔하게 나눈다. 구역원들이 주변에 믿지 않는 친척들과 이웃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구역원들의 태신자를 위해 서로 서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인도한다.

○ 구역공과지

2024년 12월 새문안교회

2024 28주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 13:1)

"네 남편을 불러오라"

사도신경	다함께
찬 송	다함께
<p>1. 네 예수께 조용히 나가네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p> <p>2. 주 예수께 은혜를 믿어 네 슬픔이 없어지리 네 이웃을 늘 사랑 하여 너 받은 것 거져주라</p> <p>3.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네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생 물에 네 마른 목 축이어라</p> <p>4. 네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p> <p>[후렴]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네 마음을 풀어오라 늘 온전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배후시리</p>	
기 도	말씀이
성경봉독	다함께
<p>¹⁵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으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¹⁶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 오라 ¹⁷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¹⁸나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p>	

I 삶 나누기

한 주간의 삶과 QT,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있다면 간단히 나눕니다.

☞ 12월 구역모임을 위한 공과

☞ 2024년 교회표어

☞ 구역공과제목 - 해당 주일예배 설교제목과 동일

☞ 찬송 - 해당 주일예배 설교 후 찬송과 동일

☞ (부)구역장이 오늘의 모임을 위해 간단히 기도

☞ 다함께 읽고, 본문이 길 경우 교독할 수 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것도 좋다.

☞ 지난 한 주간 혹은 한 달 동안 지내면서 묵상했던 말씀 또는 감사의 제목을 나눈다.

가능하다면, 공과주제와 관련된 나눔을 해도 좋다.

“네 남편을 불러오라”

2024. 11. 10. 주일예배 설교

“내 영혼이 진정 행복할 수 있을까?”

모든 사람에게서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공존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자신의 밝은 면만 보고 싶어 하고, 또 그 밝은 면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싶어 합니다. 반면, 내 안의 어두운 부분에는 고개를 돌리고 싶어 합니다. 이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어둠이 해결되지 않고, 내가 진정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죄 사람은 생명의 시작이고 입구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완전히 피어나게 되는 것, 얼굴에 어두운 그늘이 사라지게 되는 것, 혼자 있을 때에도 생에 대한 기쁨과 충만함으로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생명의 삶입니다.

※ 내 영혼의 어둠을 해결하지 않고는 진정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름 위해,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도 빛으로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예수님께로 내 존재를 터닝(turning)한다는 것은 빛 되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완전히 노출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우리는, 내 영혼의 실체가 날마다 드러나 화들짝 놀라기도 하고, 자기 안에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던 사람은 비로소 알게 되어 한없이 기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중반부에서, 바로 이런 대화가 진행됩니다. 묵묵히 대한 생수가 영생하는 물 이야기로 전환되더니, 갑자기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남편을 불러오라” (16절). 표면적인 대화의 흐름으로 보면 뜬금없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든 대화가 그렇듯이, 이는 실증의 대화입니다.

※ 빛 되신 예수님께로 향한다는 것은 나를 완전히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매우 온화하고 따뜻하게, 파고드는 예수님”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는 이 여인의 인생의 뇌관을 건드리고 깨신 것입니다. 철저한 가부장적 사회에서 내 편이나 이혼 당했으면서도, 지금은 또 다시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이 여인을, 동배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을 것입니다. 그 차가운 시선과 비추하는 게 싫어서, 여인은 아무도 없는 경로 피약벌에 몸을 걸으러 옵니다. 이 때, 예수님께서 그녀 인생의 단면을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 “남편”은 자신의 상처받은 인생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문제 환복판으로 파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때의 예수님의 모습을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매우 온화하면서도, 포용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셨을 것이고, 견네는 말 속에도 결코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말이 들어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 예수님은 매우 온화하고 포용하는 눈빛으로 우리 인생문제에 파고드립니다.

“예수께서 건네신 말씀에 담긴 의미”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여러 의미를 갖습니다. ① 먼저, 꿰뚫어 보셨다는 것입니다. 아픔으로 시름하는 가련한 인생, 그 상처로 인해 웅어리진 아픔, 그로 인해 지은 죄까지도, 모두 꿰뚫어 보셨다는 것입니다. ② 둘째, 이제 이 사람을 생명의 길로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숨기고 감춰왔던 상처를 꺼내어, 먼저 주고 싸매주고 치유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입니다. ③ 셋째, 이 사람에 대한 미래의 소망까지 품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내놓으면, 자신을 품종 뛰어왔던 상처에서 놓임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때 영혼은 참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놀랍게도, 여인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용기 있고 진실 되게 반응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17절). 그 순간, 자신의 움직임에서 일어나고 있던 아픈 일을 예수님 앞에 오픈하자, 이 여인은 놓임을 받기 시작합니다. 어둠 속에 살면서도 그게 어둠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이 여인이, 빛으로 나오게 됩니다. 늘 가슴 답답했던 여인이, 숨통 트인 인생을 살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유와 희망을 얻어, 기뻐 뛰는 인생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 예수님께 온전히 오픈하여 내어놓을 때, 기뻐 뛰는 인생이 시작됩니다.

☞ 구역공과제목 - 해당 주일예배 설교제목과 동일

☞ 해당 주일예배 날짜 표기

☞ 설교말씀을 다섯 단락(결론포함)으로 구분
“단락의 주제”와 주요 내용

※ 구역원들이 차례대로 읽고(되도록 천천히),
(부)구역장은 단락별로 말씀을 정리/요약해 준다.

☞ 위 단락에 대한 “한 줄 정리”

※ 각 단락을 (부)구역장이 정리/요약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만, 단락별 나눔을 통해 함께 정리할 수 있다.

☞ 밑줄은 단락 내에서 중요한 문장

☞ 결론을 맺기 전, 각 단락의 “한 줄 정리”를 다시 읽으며 정리해도 좋겠다.

결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네 남편, 즉 내 문제,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라. 그리고 이제부터 나와 함께 그것을 다루어 나가자.” 예수님은 탁월한, 영혼의 의사입니다. 독수리 같은 눈, 사자와 같은 심장, 여성처럼 아주 섬세한 손길로 우리 영혼 속에 있는 암 덩어리를 도려내십니다. 시각하신 주님께서 깨끗하게 갈무리하시고 아름답게 색채어 주셔서, 다시 성령성령 걸어 다니는 생명이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 11:28). 우리에게 끌린 걸음 주고 싶으 하시는 주님께 ‘아멘!’ 으로 응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나눔

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건네셨던 “네 남편을 불러오라”는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 ① 이 여인을 ○○○○ ○○ 계신다는 것
 ② 이 여인을 ○○의 ○로 초대하신다는 것
 ③ 이 여인에 대한 ○○를 ○○하고 계신다는 것

본문 11:1-12 / 13-14 / 15-16 / 17-18

② 여인에게 “남편”은 내면의 어두운 부분이자, 자신의 오랜 상처와도 같은 문제였습니다. 네 인생에 있어 “남편”으로 상징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입제 나누기 어렵다면, 나만 볼 수 있는 쪽에 적어보는 시간도 가져도 좋습니다.

③ 여인에게처럼, 예수님께서 내게도 다시 말씀 건네 오신다면, 오늘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구역원들 앞에서 나누며 결단해 보고, 기도의 제목으로도 표현해 봅시다.

④ 그 외에 어떤 공과가 주는 은혜, 위로, 격려, 혹은 도전이 있다면 나눠주시고 기도도 마무리합니다.

해당설교의 결론과 동일

질문을 함께 읽고 개인 혹은 함께 답한다.
 (부)구역장은 질문과 관련하여 해당 단락의 주제를 한 번 더 짚어주어도 좋겠다.

관찰질문

해석질문

구역의 상황에 따라 질문을 응용할 수 있다.

묵상질문

매일 동일한 질문

단, 주제와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